

은혜와 진리소식

2024년 4월 14일 [매주발행] / 발행인 : 조용목

은혜와진리교회 www.gntc.net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 (031)443-3731

·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14번길 3 ☎ (031)225-3731

· 안산시 화랑로 303 ☎ (031)486-3731

제1874호

1982년 8월 8일 창간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 1:17)



“하나님께서
저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만 섬기고 주님의 일에
전심전력하게 해주셨습니다.”

- 박향란 -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오늘도 저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유일하신 구세주로 믿는 이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인이 되고 천국시민이 되어 장차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구역장, 수구역장의 영예로운 직분을 주셔서 힘써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인내와 성실로 전도의 열매를 보는 신령한 기쁨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역 성도님들과 함께 아파하고 함께 즐거워하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함께 전도하며 함께 믿음이 자라고 신앙생활이 발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교회학교 교사의 직분을 주시고, 귀한 어린 생명들이 구원받아 하나님께 찬양하는 기쁨을 저도 20여 년을 한결같이 함께 누리며 어린이들이 신실한 청년이 되어 주님과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와진리교회의 교인으로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말씀 충만하여 하나님 중심, 예배중심의 생활을 하고 나라와 교회를 위해 충심으로 기도하며 헌신하게 됨으로 더욱 더 감사합니다.

이러한 감사의 제목과 함께 신유의 체험을 비롯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릴 이유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후 경험한 은혜로운 일 중에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마치 어제 경험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오르는 일이 있어 이를 간증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게 된 후 저의 가정은 어떤 상황에서든 우상숭배를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이 되길 바라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던 2008년 1월 어느 날 남편이 앞으로 집안의 조상 제사를 저희 집에서 지내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렇다면 추도식으로 대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저희 가족은 해마다 명절에 강원도에 있는 큰집에 가서 보냈는데, 그 일이 있는 후 설날이 다가오자 남편 혼자서 큰집에 갔습니다.

제가 거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할 때 앉는 큰 의자에 앉아 TV를 보다가 두 팔을 높이 들고 기지개를 펴는 순간, 누가 의자의 다리를 칼로 자른 듯이 갑자기 의자가 두 동강이 나면서 뒤로 ‘쿵’하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쳤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편찮으신 어머니가 의자 바로 뒤에 누워 계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언제 어떻게 소리 없이 옮기셨는지 어머니가 저 멀리 누워 계셔서 사고를 면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딸아이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큰 위험에 처할 뻔했으나 무사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저를 도와주고 계신다는 강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힘을 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제가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말씀이 기록된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묵상하고 있을 때 강원도에 계시는 시고모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돌아오는 3월의 제사 때에 큰고모하고 같이 너희 집에 갈 테니 그리 알아라” 하셨습니다. 저는 일단 “네”라고 대답하고 매일 찬송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지내는데 다시 시고모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큰 시고모님이 갑자기 넘어져 허리를 다쳐 제사 때 가지 못하게 되었다면서, “대신 제사 때 쓸 생선을 보낼 테니 음식을 잘 만들어서 제사상에 올리거라” 하셨습니다. 두 분 시고모님이 저희 집에 제사하러 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느낌이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제삿날을 하루 앞두고 남편이 제사에 사용할 여러 가지 제수품을 사 들고 왔습니다. 저는 쳐다보고 싶지도 않아서 한쪽에 두었습니다. 다음날 토요일이 되자 남편은 일하러 사업장에 나가고 저는 교회학교 예배와 행사 준비를 위해 딸아子和 함께 교회로 갔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에서 어린이들과 함께 성극 연습을 하고 하나님께 이같이 기도하였습니다. “오늘이 제삿날인데, 제사를 지내지 않게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담대하게 해주세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사 준비는 다했느냐?”고 묻길래 “안 했는데요”라고 대답했더니 ‘뚝’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읽으려고 성경책을 꺼내 펼치는 순간 화장실에서 딸이 울면서 “엄마! 엄마!” 하고 애타게 저를 불렀습니다. 급히 가보았더니 딸이 입으로 피를 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고 당황해서 “하나님! 우리 딸 살려주세요” 하며 얼른 바지를 딸의 입에 갖다 대고 토하는 피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연신 “하나님! 피를 멈추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딸 살려주세요” 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흐르던 피가 멈추었습니다. 저는 딸을 안심시키고 화장실 문 앞에 그대로 무릎 꿇고 엎드려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겠습니까. 우상은 절대로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잘 섬기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때 저는 강렬한 체험을 하였습니다.

마음을 추스르고 수구역장님에게 전화하여 상의드렸더니 “추도식을 하더라도 끝나면 식구들이 식사를 해야 할 테니 우선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전화를 끊고 음식을 장만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손을 움직이시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디서 그런 능력이 생겼는지 짧은 시간에 음식을 다 장만하고 시간이 남아서 맛있는 다른 음식까지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9시쯤 남편이 시동생 둘과 함께 집에 왔습니다. 열심히 지방을 쓰는 시동생 옆에서 남편이 “상은 이렇게 차리면 되지?” 하고 야릇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제사는 지낼 수 없다. 추도식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린 후 함께 식사하자”고 담대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곧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시동생들이 이왕 이렇게 왔으니 오늘 한 번만 제사를 지내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딸이 조금 전에 피를 한 바가지나 토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제사만은 지낼 수 없다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시동생들이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간 사이 저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나아가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밤 11시가 다 되어서 다시 들어온 두 시동생에게 남편이 “어서 병풍 치고, 상 펴고, 제기 그릇을 가져오라”고 지시하듯 말했습니다. 남편이 음식을 접시에 올리면 저는 내리기를 반복했습니다. 시동생이 병풍 앞에서 “다른 것은 됐으니 딱 술 한 잔만 조상께 올리겠다”고 했지만 이 또한 거부했습니다. 남편이 시동생들에게 “어서 촛불 켜고 음식을 차리라”고 하는 순간, 마치 얼음이 된 듯 제 몸이 정지상태가 되었습니다. 입술도 단혀서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동생들이 제사 지낼 준비를 하는 그 때에 ‘네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용기를 북돋워 주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정신을 차리고 막내시동생의 손을 부여잡고 “도련님! 저 좀 살려주세요. 우리 집에서 제사는 안 돼요. 대신 같이 즐겁게 옛날 이야기하면서 맛있게 식사해요” 하며 간곡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조상님께 불충한 벌을 어떻게 다 받으려고 그러세요” 하는 시동생의 말에 “그 벌 제가 다 받을게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과 동시에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병풍 앞에서 눈물 콧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바로 그 때 남편이 흑시라도 제가 다칠까 봐 두 딸아이를 함께 저를 품에 안고는 잘못했다고,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제사상을 치우고 제사용품들을 다 정리한 후에도 남편은 세 번이나 거듭하여 앞으로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시계를 보니 밤 12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두 시동생은 언제 집으로 돌아갔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에 그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잠자리에 누웠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더욱 감동시켰습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예레미야 33:2,3). 이 말씀이 그 밤에 저에게 임했습니다. 실랑이를 하면서 비록 몸에 멍은 들었지만 하나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 날 이후로 저는 하나님만 섬기고 주님의 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과 사랑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하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악하고 험한 세상에서 저의 눈이 바라보는 것들이 진실이게 하시고, 저의 귀가 듣는 것들이 진리이게 하시며, 저의 입이 말하는 것들이 주님을 증거함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의 발길이 닿는 곳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구역공과 제1권 (7단원 : 성도의 사명) (제44과) 섬김의 사명

- 본문 : 요한복음 12:26
- 요절 :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 25:40)
- 찬송 : 40장(새찬송가 79장), 302장(새찬송가 575장)

인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담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타락했고, 사망과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은 다 죄인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구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또 다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영광스러운 지위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을 섬김으로 얻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이 될까요?

1.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생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으로 계시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지으신 후에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대상으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성경은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 1:27~28)

아담과 하와가 피조되어 맞이한 첫 날은 하나님의 안식일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생존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뿐이었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할 일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듣는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고 있는 집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한 마르다는 예수님을 잘 섬기려고 음식 준비에 바빴습니다. 그러나 동생 마리아는 방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느라고 부엌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일손이 모자라자 마르다는 마리아에게 부엌일을 거들게 하려고 주님께 도움을 청했지만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눅 10:41,42)

마르다가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 음식 만드는 일을 예수님께서 나쁘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발 아래서 말씀 듣는 마리아의 태도가 더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주님을 잘 섬기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한다는 구실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일을 소홀히 해서 안 됩니다. 사회 사업, 자선 활동 등으로 바빠서 교회에 갈 시간이나 성경

읽을 시간이 없다고 변명해도 예수님은 그 변명을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어떤 일보다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주일예배, 수요일예배, 구역예배 등 교회의 공식적인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으로 들어야 합니다.

2. 하나님을 찬양하는 생활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 중에서 찬양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세상에 속했던 죄인들이 그리스도 예수께로 돌아온 후에 다가오는 큰 변화 중의 하나가 바로 찬양하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시 22:3)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십니다. 성경책의 중심 부분이 시편이고 성경 66권 중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도 시편인데, 여기에는 찬양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은 곧 성도의 생활이 찬양으로 가득 차야 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루에 일곱 번씩 찬양한 다윗처럼(시 119:164) 찬양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번영할 때나 고난 중일 때나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쉬지 않아야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찬양으로 하나님을 섬기자, 하나님께서 옥터에 지진을 일으켜 묵었던 창고가 풀어지고 감옥 문이 열리게 해주셨습니다. 성도들이 이같이 찬양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사랑과 권능의 손을 내밀어 복을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또한 찬양하는 일은 영원무궁토록 우리가 계속해야 할 사명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의 휴거된 교회가 천상에서 예배 드리는 장면을 보면 네 생물, 성도, 천사, 만물들이 찬양으로 천국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함이 곧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3. 사랑과 겸손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생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석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실 때 베드로가 이를 사양하자 예수님은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심으로 친히 모범을 보여주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과 겸손으로 성도들을 섬겨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 격려하고, 구제, 용서, 기도, 찬송, 축복으로 성도의 발을 씻겨 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의인들이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였느냐고 반문하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마 25:35~40).

이처럼 우리가 성도들을 섬기는 작은 일들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됩니다.



- 안양 :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T. 031-443-3731~2, 446-9184
- 수원 :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14번길 3 T. 031-225-3731, 234-3732
- 안산 : 안산시 화랑로 303 (고잔동) T. 031-486-3731~2
- 과천 : 과천시 별양상가2로 41 (별양동) T. 02-502-3731
- 시흥 : 시흥시 신천로 44번안길 20-1 (신천동) T. 031-318-3731~2
- 광명 : 광명시 소하로 109번길 13-18 T. 02-894-3731
- 부평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237(청천동) T. 032-507-3731~2
- 부곡 : 의왕시 까치골1길 25 (삼동) T. 031-462-3731
- 판교 :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335 T. 031-716-3743, 716-7832
- 영등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평로 222길 5 T. 02-2632-3731
- 산본 : 군포시 산본로 323번길 10-18, 6층 T. 031-395-8227
- 인천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12번길 9 T. 032-469-3742
- 부천 :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3번길 6 (송내동) T. 032-652-3731~2

- 일산 :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866(중산동) T. 031-906-3731
- 시화 : 시흥시 서촌상가3길 17 (정왕동) T. 031-497-3732
- 영통 :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418 (영통동) T. 031-205-3732
- 구리 : 구리시 동구릉로 16번길 6 (인창동) T. 031-567-3731
- 포일 : 의왕시 내손로 70-9 (내손동) T. 031-422-9200
- 전원 : 화성시 봉담읍 왕림2길 76 (세곡리) T. 031-298-3739
- 전원(수양관,본관) T. 031-227-5992~3, 227-3739
- 김포 : 김포시 청송로 4 (장기동) T. 031-985-3731~2
- 평택 : 평택시 정암로 126-19 (이충동) T. 031-662-3731
- 안중 : 평택시 안중읍 송담1로 144 T. 031-684-3731
- 천안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유량로 144 T. 041-555-3731
- 전주(평화)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12길 8-2 T. 063-225-3731
- 양주 : 양주시 평화로 1416번길 34-26 (덕계동) T. 031-863-3731
- 원주 :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오성마을길 30 T. 033-764-3735
- 강남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20 (수서동) T. 02-459-3731
- 장유 : 경남 김해시 덕정로 12번길 39-11 (관동동) T. 055-312-3731
- 용인 :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37 (역북동) T. 031-337-0688
- 영종도 : 인천광역시 중구 햇내로 48 (운서동) T. 032-751-3731
- 대전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남로 41번길 30 T. 042-471-3736
- 광주 :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마루들길 168 T. 031-763-3720
- 남양 : 화성시 시청로 102번길 56 (남양리) T. 031-355-3729
- 대구 :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278 (내당동) T. 053-522-3731
- 서산 : 충남 서산시 무석3로 11 (석림동) T. 041-667-3731
- 울진 : 수원시 장안구 하로로 55 (천천동) T. 031-271-3731
- 동탄 : 화성시 동탄공원로 1길 26-71 T. 031-8015-3731
- 당진 : 충남 당진시 대호만로 123 (재운동) T. 041-353-3731
-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 420 (보람동) T. 044-862-3732
- 전주(효치)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신촌2길 32-5 T. 063-239-1004
- 인제 : 강원도 인제군 삼남면 내린천로 2572 T. 033-463-1312
- 경주 : 경북 경주시 용담로 46-5 (황성동) T. 054-772-7867
- 아산 :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방현동길 39번길 21-18 T. 041-534-3731~2
- 충주 : 충북 충주시 거룡1길 36 (용산동) T. 043-848-3731
- 진위(제2수양관) : 평택시 진위면 동부대로 30 T. 031-662-3731
- 산서 : 전북 장수군 산서면 성계로 2 (쌍계리) T. 063-351-7518
- 진주 : 경남 진주시 금산면 중천로 8-7 T. 055-752-6675
- 온양 : 충남 아산시 청운로 180 T. 041-533-3731